

# ‘포용금융 대전환’ 시동…은행 평가해 출연금 차등

## 금융위 첫 회의…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등 도입 4%대 미소금융 청년·취약층 전용 대출 1분기 발표

정부가 은행권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포용금융 확대 유도에 나선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에 허가제가 도입되고, 금융소외자를 위한 3~6% 금리의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제공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

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과 세부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요율을 차등화하는 구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은행권의 자체 서민 대출상

품인 새희망플러스 공급 규모를 올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은 올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높인다.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저금리 대출 상품과 관련해서는 1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 상품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을 신설하고,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3~4%대 소액 대출 공급 규모도 3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을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발표

한 바 있다.

새해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금리는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완화했다.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사들이 추심하는 대부업의 한 유형으로, 진입 요건이 느슨해 업체 수가 834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체가 과도하

게 늘어나면서 연체채권 매각 경쟁이 심화하고, 이 과정에서 채권 가격이 올라 추심강도가 높아지는 구조가 고착됐다고 보고 있다.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는 신용정보회사 수준의 진입 요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용정보회사는 자본금(30억원)과 인력(20명) 요건 등을 두고 있으며 업체 수는 22개사 수준이다.

매입채권추심업자 양수 채권 관리·감독을 위해서는 해당 채권 전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마이행 시 최고 영업정지·등록취소 제재 조치를 부과할 계획

이다.

아울러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하거나 반복적으로 매각하는 관행도 손본다.

금융위는 연체채권을 소멸시효 완성을 전제로 손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이나 추심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 보호책임을 부여하는 등 채권 매각과 관련한 규제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과제 도출 및 이행 점검을 위해 매달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연합뉴스

## 삼성전자, 한국 기업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

작년 매출 332.8조·영업익 43.5조 역대 최대

상반기 모바일·하반기 메모리반도체 실적 견인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20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4분기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영업이익을 내며 연간 최대 매출 기록과 분기 최대 영업이익 기록도 갈아치웠다.

상반기 갤럭시S26 시리즈 판매 호조로 모바일 사업이 실적을 견인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메모리 초초황기를 맞은 반도체가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08.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식했다. 전 분기(12조1700억원) 대비로는 64.3% 증가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국내 기업 중 최초로 단일 분기 영업이익 20조원을 기록하게 됐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어지던 지난 2018년 3분기 17조5700억원 이후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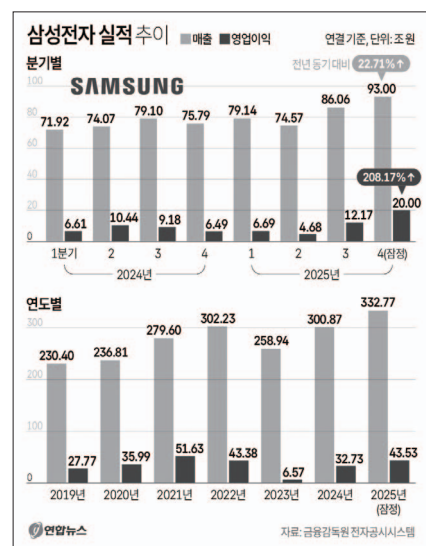
년여 만에 자체 역대 최대 분기 영업이익 기록도 경신했다.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누적 영업이익은 43조53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8조8900억원, 2017년 53조6500억원, 2021년 51조6300억원 이후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작년 4분기 매출 역시 93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7% 늘고, 전 분기 대비 8.1%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전체 매출은 332조7700억원으로, 2022년 302조2300억원 이후 3년 만에 역대 최대 연간 매출 실적을 갈아치웠다.

상반기에는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이, 하반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번갈아가며 실적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모바일경험(MX) 사업부는 갤럭시S26 시리즈의 견조한 판매를 기록하며 상반기 누적 7조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약 1조5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실적 부진을 겪던 반도체 사업은 하반기 들어 수익성을 크게 높이며 실적 개선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연합뉴스

## 지난달 광주·전남 상장법인 시가총액 8% ↓

한전 주가 하락 영향…전월비 3조4024억 증발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한달새 8%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전남 상장법인 38개사(유가증권시장 16곳·코스닥시장 22곳)의 시가총액은 40조662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5285억원(8.1%) 감소했다.

지역 상장사 시가총액 감소는 한국전력의 주가 하락 영향이 컸다. 한전의 시가총

액은 지난해 11월 말 33조7031억원에서 지난달 30조3007억원으로 3조4024억원 감소했다.

지역 투자자들의 거래도 위축됐다. 지난달 광주·전남 지역 투자자의 거래대금은 5조1744억원으로 전월 대비 547억원(1.0%) 줄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거래대금

이 3조56억원으로 전월보다 16.3% 감소한 반면, 코스닥시장은 2조1689억원으로

32.5% 증가했다.

시가총액 증가액 상위 종목으로는 유가증권에서 화천기공 96억원이 증가한 800억을 달성해 1위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금호건설이 81억 증가한 1476억원, 광주신세계가 72억원 증가한 251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코스닥에서는 에스오에스랩이 816억이 증가하며 시가총액 2527억원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서암기계공업과 오이슬루센도 106억원씩 증가해 각각 시총이 566억원, 1529억원으로 늘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는 8일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도약과 화합을 다짐했다.

## “불필요한 규제 개선·SOC예산 확대 등 힘쓸 터”

건설협회전남도회 신년 인사회 열려

대한건설협회전남도회(회장 박경제)는 8일 광주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신년인사회를 갖고 새해 도약과 화합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도회 소속 대표회원 120여명과 문인기 전남도 건설교통국장, 박용희 건설공제조합 광주전남금융센터장 등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경제 회장은 “올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건설산업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물량확보를 위한 SOC예산 확대, 낙찰률 상향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기술자 보유기준의 완화, 간이종산제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장학사업과 지역사회 취약시설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사회공

헌사업을 병행해 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 해 전남도가 건설인의 성원에 힘입어 AI와 에너지로 미래를 열어가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서는 건설시공과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박경제 회장 등 20명의 유공자에 대한 전남도지사 표창장 수여식도 이어졌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 전남도, 1조5000억 ESS 입찰 대응 총력

시·군과 현장지원단 운영…기업 부지 발굴·주민수용성 컨설팅

KISA, 통합플랫폼 성과 공개  
지자체·산단까지 확대 적용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비대면 환경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리보안 체계를 하나로 묶는 통합플랫폼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며 산업 현장 적용 확대에 나섰다.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약 4년간 추진해온 ‘비대면서비스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운영체계 개발’ 연구개발(R&D) 사업과 관련해 최근 성과 공유회를 열고 플랫폼 개발과 표준화, 현장 실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CCTV, 출입통제, 보안센서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물리보안 시스템을 연동해 종합 분석과 신속 대응이 가능한 통합 관리 기술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물리보안 제품 및 통합플랫폼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성능시험 대상 분야 확대와 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도 함께 도출했다.

특히 이기종 물리보안 시스템 간 연동을 위한 표준 기술을 개발해 국내 표준 3종으로 제정하면서 제조사가 다른 보안 제품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전남도는 전력거래소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ESS 물량 확보를 위해 시·군과 함께 현장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지원 강화에 나섰다.

2차 입찰물량은 육지부 500MW, 제주 40MW로 1차 입찰과 같다.

전남도는 1차 입찰에서 6개 시·군 7개 변전소에서 입찰물량을 웃도는 523MW 전량을 확보했다.

ESS 정부 입찰은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광주·전북·강원·경북 5개 시·도 129개 계통관리변전소를 대상으로 하며, 전남은 46개소로 가장 많다.

ESS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설비로, ‘전력 저수지’로도 불린다.

전남도가 1차 입찰에서 확보한 523MW는 1조5000억원 규모 설비로, 태양광발전소 872MW의 출력제어 해소와 배터리 제조·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9300여개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2차 입찰에서도 시·군과 현장지원단을 운영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부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컨설팅을 제공하고, 화재와 설비 안전성도 점검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육지부 ESS를 2026년 500MW, 2027년 600MW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완화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부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등 상시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ESS 산업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2차 입찰은 전력거래소가 오는 12월까지 시·군별 계획을 접수하며, 우선협상대상자는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낙찰자는 6개월 이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2027년 12월까지 ESS 발전소 준공을 마무리한다.

유현호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ESS 구축을 환영한다”며 “ESS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 첨단기업 유치에 앞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